



분단의 장벽을 깨고 하나가 된 나라

독 일 (1)



배순덕

동베를린의 국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곧 바로 저 통한의 담장인 베를린 장벽으로 갔다. 총 길이 145.1km, 1961년부터 28년동안 단순히 독일의 분단만을 상징한다기 보다는, 더 큰 범주에서 보면 동서분단과 냉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1936년 제13회 올림픽 개최지이기도 한 베를린은 1945년 제2차대전에서 패망한 후 연합국의 공동관할(미·영·불·소)하에 동·서로 분할되었다. 1961년 8월 13일 동독은 동·서베를린의 경계선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단절의 장벽을 축조하였으나, 1990년 10월3일을 기점으로 장벽은 무너지고 독일은 다시 하나의 통일국가가 되었다. 베를린장벽의 붕괴는 단순한 독일의 통일이 되기 보다는 그동안 팽팽히 맞서 왔던 동서 냉전시대의 막을 내리는, 시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재 통일된 독일은 모두 16개주(서독11, 동독5)로 된 국토의 넓이가 한반도의 1.6배이며, 동서독 합하여 7,842만명의 인구와 인구의 85%가 기독교 신자이다. 건축, 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의 각 분야에까지 완전 지향적인 엄격함과 진지함을 추구하고 있고, 각 도시별로 자체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어 음악이나 전통적인 축제행사를 매년 개최할 정도로 예술의 생활화가 두드러진 나라이다.

방송은 공영(公營)이지만 신문은 전통적인 사(私)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국가의 상징은 떡갈나무이며 초등학교에서 중, 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학교



▲ 그림이 그려진 베를린 장벽. 장벽은 상상했던 만큼 험악한 건 아니었으나, 이 단순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동포가 수십년을 단절하며 살았다는 것이 이상했다.

교육은 무상으로 실시되지만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의 졸업 여부는 철저하게 국가시험에 의하여 결정된다.

독일에서는 동양의 미덕인 겸손이나 양보는 통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는 잘잘못을 분명히 가리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초래하기도 한다. 서류에 서명을 할 경우에도 내용을 명백히 알고난 후에 서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음료수 대신에 주로 맥주를 마시므로 식당과 술집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고,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냉수를 시키면 물값을 따로 받는다. 첫날은 무너진 장벽을 따라 동서독을 넘나들며 바쁜 일정을 보내다가 점심 때는 서베를린의 한국인이 경영한다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주인은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라며 만면에 웃음을 띠고 온 가족과 종업원들까지 불러내어 인사를 시킬 정도로 반가워했으나, 식사 도중 물을 더 달라고 하자 예외없이 계산서에는 물값이 추가되어 나왔다. 우리 숙담에, 험하게 아낌없이 펄펄 써대는 것을 「물 쓰듯 한다」라고 하는 데 그러한 우리 숙담을 독일인들은 이해나 할 수 있을까?

험난했던 역사의 현장을 보여주는 무너진 장벽 근처에는 노점상들이 많았다. 장벽을 허물어 만든 벽돌조각과 군인들의 옷과 모자와 신발, 그리고 엽서와 뺨지 등 그들이 파는 품목은 거의 일정했으나 때론 엉뚱하게도 모스크바의 관광지에서 보았던 나무인형이 좌판 위에 놓여 있기도 했다.

이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이 되어 버린 내 조국을 생각하며 비닐에 포장되어진

벽돌조각 한봉지를 샀다. 장벽이 무너지기 전의 여러 모습을 촬영하여 만든 작은 탁상용 달력을 함께 구입했더니 아주머니는 덤으로 스탬프가 찍혀진 벽돌 한조각을 더 얹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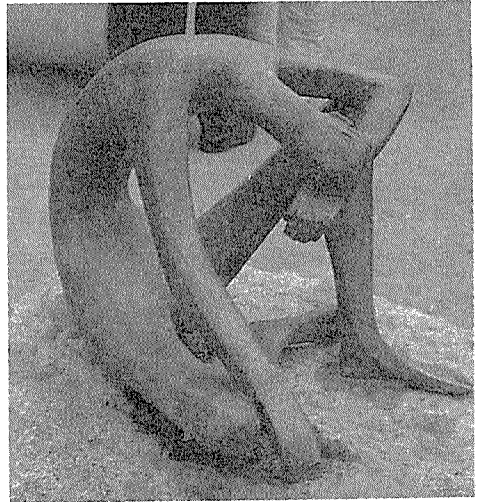
무너진 장벽의 한편에는 아직도 미처 치우지 못한 장벽이 그대로 남아있고 포크레인이 웅웅거리며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었다. 거리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며 서있는 건물의 외형에서부터 어느 쪽이 동독이었고 어느 쪽이 서독이었나의 차이가 확연히 구분되어졌다.

동베를린에 있는 훔볼트 대학을 방문하여 도서관과 강의실 등을 둘러보고, 그곳에서 한국학을 강의하는 여자교수를 만났다.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후 1950년대에 북한으로 건너가서 우리 말을 익히고 돌아왔다는 그녀는 주로 한국의 문학과 사상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녀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자료는 한마디로 북한 일변도였다. 70년대 말까지는 이 대학에 한국(남한)에서의 자료 수집이 전무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학 도서관과 그녀의 개인 집무실의 한국발행 서적은 북한에서 발간된 책들이 195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두 구비되어 있었음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책, 특히 미술이나 역사에 관한 책은 1980년대 이후 한두권에 불과했다.

그녀가 다른 내방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책을 몇권 꺼내어 펼쳐보았다.

북한의 이여성 이라는 저자의 이름이 불



▲ 관광객과 노점상으로 들끓는 허물어진 장벽터에 있는 키작은 조각상. 고개를 숙인 채 깊게 구부린 등, 축 처진 팔이 끝없는 슬픔을 느끼게 한다. 이 조각은 아무래도 장벽이 허물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분단의 아픔을 표현한 것인 듯하다.

어있는 「조선미술사 개요」에는 국민학교에서 대학을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보았을 고구려 무용총의 기마수렵도나 조선시대 화가의 그림등 낮은 것도 있었으나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한 새로운 그림과 자료들도 꽤 있었다.

평소엔 남의 일처럼 무감각하게 지내다가도 분단의 아픔이 실제감으로 다가오는 건 바로 이런 경우이다.

독일이 분단된 건 역사 속에서 그들이 범한 죄의 댓가이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분단이 되었을까? ㉞

〈필자=화가·호는 창랑(滄浪)〉